



따뜻한 사랑의 비, 단비가 몽골에 내렸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단 하나의 비밀, 단비!

매주 일요일 저녁, 나눔의 참 기쁨을 선사하고 있는 MBC 일밤 <단비>팀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 2010년 여름, 몽골의 땅을 밟았습니다.

지난 겨울 심각한 한파로 몽골 전역에서 300만 두의 소와 양, 염소가 몰사! 유목민들은 하루 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유목민 수가 원래의 1/4 (약 60만 명)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인구의 1/3이 목축업에 종사하는 몽골의 이번 겨울 피해는 대재앙이었습니다. 몽골의 아픔과 실상, 그리고 희망의 단비 방울을 일밤 <단비>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몽골의 희망 재건에 동참해 주세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단비> 여름방학 특집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몽골편” 방송

- 일시 2010년 7월 11일, 18일, 25일(일) 저녁 5시 20분 방송
- 내용 아시아 최빈국 몽골 도시빈민 어린이, 사막지역 유목민 지원



학생들이 제작한 햄버거 소비가 지구촌의 빈곤 및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홍보하는 포스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구시민교육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지구촌

- 국제협력부 박진솔

‘지구시민이 뭐예요?’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계가, 지구가 나와는 다른,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상생활 속에서 세계화 영향을 받는 부분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 역시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의 원어민 선생님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다문화가족까지.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우리’이며,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지구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문제를 이해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지구시민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지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

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무려 몇 초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는 특정 상표가 그려진 모자를 쓰고 하루에 약 5,000여만 원을 벌지만, 그 모자를 만드는 태국 노동자들의 일당은 몇 천원에 불과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먼저 심각하게 받는 국가는 개발도상국, 그 중에서도 최빈국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구시민교육을 받은 언북중학교 3학년 6반 학생들은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교육에 참여하다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먹은 햄버거 하나가, 사소한 습관 하나가, 지구 전체에 상상을 초월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생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게 변합니다. 지구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낀 것입니다.

지구촌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동정심에서 비롯된 자선 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구조적인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참여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지구시민교육의 목적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구시민으로서 거듭나기 원하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신청] • 대상 중 ·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 청년 • 문의 국제협력부 02)727-2287



자신의 다짐을 적은 종이를 생명의 지구나무 만들기



조별활동 중인 언북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가톨릭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 교회 내 장기기증운동의 새 역사를 만든다

- 생명운동부 김영삼

지난 2009년 2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는 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 약속하셨던 대로 각막기증이라는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으로 널리 퍼져 작년 한해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 또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에서 장기기증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보다 체계적인 기증자 관리 및 지원 시스템과 전국적이고 동시적인 생명나눔 실천운동의 필요성이 요청 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신부)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발의, 지난해 10월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운동본부(위원장 장봉훈 주교) 산하에 ‘가톨릭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무국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담당하도록 공식 승인 받았습니다.

가톨릭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는 전국 교구 연대 조직으로서 장기기증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제고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범국민적으로 확산하여 교회 내 장기기증 희망자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각 교구별 지역사회와 연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가톨릭교회의 장기기증 운동을 더욱 활성화 하여 교회를 넘어 온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유산, 장기기증 ‘당신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가톨릭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에서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기를 맞아 사순 시기부터 ‘아름다운 유산, 장기기증’을 주제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12개 교구에서 1만 6,700여 명(10.5.31기준)이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기를 기증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13,000여 명에 달하고, 각막을 기증받기 위한 대기자 역시 1,200여 명에 달하는 등 실제 기증자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죽습니다. 그 누군가의 죽음은 세상을 살다 떠나는 한 명의 삶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를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장기기증을 통해서 말입니다.

• 장기기증 상담 및 장기이식대기자 후원문의 1599-3042(생명살이)

청소년 생명학교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250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생명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주위 친구들이 자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모습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생명학교는 청소년 단체의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도 운영됩니다.

■ 교육 문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서지영
(02)727-2297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여러분,
당신 곁에 생명친구가 있어요

■ 상담전화

1599-3079(생명친구)

■ 상담시간

(월~토) 10시~21시30분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80-307979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2010년 7월 1일 현재)

하루 100원 모으기 후원안내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지로 7522277

■ 인터넷참여 www.obos.or.kr

■ ARS 060-700-1117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 신한은행 512-03-004088 /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 외환은행 061-22-03709-4 * 예금주 :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

띠앗누리 10기 파견

본부는 국제지원활동 프로그램인 띠앗누리 10기를 파견합니다. 띠앗누리 10기는 국내에서 총 4차례에 걸친 배움터를 통해 빈곤, 환경, 인권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이어 2010년 7월 14일부터 29일까지 몽골 종돛드시에 위치한 유목민센터에서 현지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지의 지역 주민·청년들과 지구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회사목

2010년도 구역(반)장 월례연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본당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본당의 사회복지 활동을 위한 구역(반)장 월례연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역(반)장님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제 사회복지를 위한 구역반장의 역할
- 대상 구역(반)장
- 일시 7월 6일(화)~16일(금)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에서는 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청소년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7월 31일(토) 09:00~13:00
- 장소 가톨릭회관 426-1
- 대상 중고등학생 30여 명(선착순마감)
- 문의 02-727-2248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콩 모아 사랑나누기

이메일만 보냈을 뿐인데 기부를 할 수 있었어요

직접 돈을 내지 않아도 사회 공익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과 블로그 사용만으로도 기부 온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메일을 이용할 때 메일 하단 '콩메일로 쓰기'에 체크하고 보내면 한 달에 최대 10개의 기부콩을 제공받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해피빈 기부콩은 1개당 100원이 기부되며 콩은 본인부담이 아니라 해피빈과 해피빈 파트너사가 부담합니다. 늘 마음에는 있지만 실천이 쉽지 않았던 사람들도 해피빈에서 주는 콩을 받아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가 가능하며 기부해주신 소중한 콩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원하는데 쓰입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obos>

생명운동

6월 생명나눔 캠페인 현황

* 단위:명

날짜	장소	장기	조혈모	현혈
6/7	한밭대학교	*	74	60
6/9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	78	25
5/26~6/23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231	49	*
총계		231	201	85

백혈병·난치병어린이지원사업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박**(남, 만 16세)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국립암센터	1,000만원
홍**(여, 만 6세)	간헐사시(양안)	인천성모병원	320만원

바른 재유를 바랍니다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신정동성당 캠페인

지난 6월 19, 20일 신정동성당(주임 김철현 신부)에서 이틀 동안의 나눔을 통해 하루 100원 모으기 후원신청 192명, 장기기증 신청에 51명의 신지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주시는 신정동성당 주임신부님과 모든 신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살레시오 나눔의 집, 청소년 용돈 아껴

아이티 성금 전달

"살레시오 나눔의 집" 청소년 47명이 사순 기간 동안 용돈을 아껴 모은 1,076,690원을 아이티를 위해 기부해주셨습니다. 살레시오 청소년들이 전해온 사랑이 있어 아이티는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사랑의 나무를 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청소년 여러분의 마음이 아이티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 신학대학에서 전해온 사랑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소병욱 신부) 신학대학 학생회에서 아이티 성금 100만원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성금은 한 학기 동안 모은 미사 봉헌금 중 일부로 "도움이 절실한 아이티 지진 피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으로 쓰자"는 신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전달해 온 것입니다. 신학생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은 절망 속에 간절한 희망을 찾고 있는 아이티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생애첫기부

- 백재훈 마티아 (2009. 5. 20생 父백형민/母안수진)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 송지우 젤뚜르다 (2009. 3. 17생 父송남곤/母박현애) 745,150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 김태연 소화데레사 (2009. 6. 1생 父김홍석/母이혜경) 4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 허정우 다니엘 (2007. 7. 2생 父허병구/母박수정)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 이수인 베로니카 (2009. 6. 28생 父이정원/母이상인) 10만원(저개발국가 어린이 지원)
- 권지안 보나 (2009. 6. 10생 父권진호/母백미애) 8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권지안 보나 가족

